

신라의 山嶽崇拜와 북악 金剛山

李 泳 鎬*

- I. 머리말
- II. 山嶽은 시조의 탄강지
- III. 大·中·小祀 체계와 三山五岳
- IV. 王京五岳의 성립과 北岳 金剛山
- V.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인들은 산악을 신성시하였다. 그래서 시조가 산 정상에 내려왔다는가 선악에 태어났다는 설화를 많이 남겼다. 물론 이를 사실로 믿긴 어렵지만, 일찍부터 산악을 성산으로 숭배하고 신앙한 전통이 이러한 설화들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겠다.

신라에서는 명산대천을 大祀·中祀·小祀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제사하였다. 대사인 三山이 신라 왕경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중사의 첫머리에 나오는 五岳은 통일된 신라의 5방을 무대로 하였다. 소사 또한 전국의 여러 산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같은 정연한 산악숭배 체계는 삼국통일기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삼산과 오악에 대한 제사였다. 이들이 국가제사로서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leeyho@knu.ac.kr

확립된 것은 삼국통일 직후인 7세기 후반이었다.

삼산과 함께 『삼국사기』 제사지에 편제된 오악은 “新羅五岳”이었다. 수도에는 “王京五岳”이 별도로 존재하였는바 학계에서는 대체로 동악 토함산, 서악 선도산, 남악 남산, 북악 금강산, 그리고 중악 낭산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는 한결같이 南岳은 舍月山으로 나타남을 주목하였다. 나아가 『삼국유사』 등에서 왕경오악의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고, 남악은 南山이 아니라 舍月山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남산이 왕경 남쪽의 靈山이면서도 남악이 되지 못한 이유는 남산에 南山新城이 축조되고 왕궁의 일부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왕경오악의 성립 시기로 문무왕대를 주목하였다. 그래서 신라오악과 같은 시기인 삼국통일 직후인 7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서서히 유행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제사로서 『삼국사기』 제사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라오악보다는 관념적이며 구속력이 약했다고 파악하였다.

끝으로 북악 금강산의 왕경의 神聖地로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금강산만이 신라 6성 기원 설화와 관련되고 두 성씨 시조의 탄강지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토착신앙의 중심지로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말해주었다. 또한 금강산은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신령스런 장소였다. 신라 4靈地의 하나로서 산악신앙에 바탕을 둔 聖所였던 것이다.

한편, 금강산은 신라 불교 공인의 聖地였다. 법흥왕대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이 있어, 그의 옛 무덤이 수축되고, 추모하는 순교비가 세워졌으며, 예불하는 향도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금강산이 왕경오악 가운데 북악으로서 위상이 높았던 사실과 무관치 않았다.

◆ 주제어

삼산(三山), 신라오악(新羅五岳), 왕경오악(王京五岳), 북악(北岳), 남악(南岳), 금강산(金剛山)

I. 머리말

신라인들은 산악을 聖山으로 숭배하였다. 始祖가 山頂에 강림했다든가 仙岳에 태어났다는 기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편찬된 『구당서』 및 『신당서』에도 신라인들이 山神에게 제사하기를 좋아했다고 기록하였다. 더욱이 『삼국사기』 권32, 제사지에는 신라의 名山大川을 대·중·소사로 나누어 국가에서 제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신라인만 산악을 중시한 것이 아니고, 또 그 기원도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이지만, 신라시대에 이르러 산천에 대한 국가제사가 체계화되었다고 하겠다.

우리 역사에서 산악은 仙靈과 시조의 誕降地로서 중시되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太伯山 정상의 신단수 아래 내려와 웅녀와 결합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다거나, 가야 구지봉에서의 6가야 시조의 탄생, 신라 6성의 기원이 된 6촌장의 강림 설화가 그것이다. 신라 6촌장이 각각 李, 鄭, 孫, 崔, 裴, 薛 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지만, 성씨는 노례왕 9년(32)이 아니라 6세기 중엽 진흥왕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지만 산악을 신성시한 전통이 이러한 설화들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겠다.

신라에서는 명산대천을 大祀·中祀·小祀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제사하였다. 이 같은 정연한 체계는 삼국통일기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삼산오악에 대한 제사였다. 대사인 삼산이 신라 왕경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중사인 오악은 통일된 신라의 5방을 무대로 하였다. 소사 또한 전국의 여러 산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산악이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통일 후라 하더라도, 그 기원은 삼국시대나 그 이전부터였다고 생각한다. 일찍부터 이어져온 산악숭배의 전통이 통일기에 와서 국가제사로 제도화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경주의 금강산은 신라 왕경의 주요 산악이었다. 통일신라 시기에 동악 토함산, 서악 선도산, 남악 함월산과 함께 북악으로 중시되었다. 여기에 중악을 포함할 경우 王京五岳이 형성되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新羅五

岳과 병존하였다. 여기서는 삼산오악의 성립에서 시작하여 왕경오악의 형성, 그 가운데서도 북악인 금강산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山岳은 시조의 탄생지

우리 민족은 산악을 신성시하였다.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서는 건국 설화를 전하면서 산악을 숭배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환웅의 서자 환웅이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 하강하였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으니 이가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그는 1908세까지 살았고, 최후에는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또 고구려에서는 늘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에 제사하였다.¹⁾ 동부여에서는 부루가 늙고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하여 후사를 구하였으며,²⁾ 동예에서도 풍속에 산천을 중시하고 이곳에 특별한 부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³⁾ 또한 백제에서는 의자왕 15년(655)에 붉은색 말이 北岳 烏菴寺에 들어가 울었다고⁴⁾ 하여 5岳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고구려, 동부여, 동예, 백제 등에서도 일찍부터 산악숭배의 전통이 이어져 왔음을 말한다.

신라에서는 여러 시조가 산악에서 탄생하였다. 문무왕릉비에서는 “十代祖星漢王 降質圓穹 誕靈仙岳”이라 하여 15대조 성한왕이 원궁에서 바탕몸이 내려오고, 선악에서 영혼이 탄생했다⁵⁾고 하였다. 또한 『삼국사기』 권32, 제사지에서는 제22대 지증왕이 시조 誕降之地인 奈乙에 神宮을 창립하고 제사했다고 한다.⁶⁾ 나을은 大祀 三山 가운데 으뜸인 奈歷

1) 『삼국사기』 권32, 잡지1, 祭祀.

2) 『삼국유사』 권1, 기이, 東扶餘.

3) 『삼국지』 위서,동이전 濊.

4)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의자왕 15년조.

5) 문경현 외, 『新羅王京五岳研究』, 경주시·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51쪽.

이나⁷⁾ 楊山에 비정한다면, 곧 오늘날의 南山 자락이다.

양산 기슭의 蘿井에 하늘에서 내려온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가 있고 말은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개 보니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있었다. 그 일로 인해 그를 혁거세왕이라 이름 하였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왕은 알을 깨고 나왔지만 楊山에서 탄생한 것이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혁거세가 西岳神인 西述聖母에 의하여 서악에서 태어났다고 한다.⁸⁾

혁거세가 朴氏의 시조로 숭배되었다면, 脫解는 昔氏의 시조로 숭배되었다. 해양세력인 탈해는 배로 동해안 아진포에 도착하였다. 처음 토함산에 올라가 石塚를 쌓고 그곳에서 7일간 머물면서 성 안에 살만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지로 瓠公의 집을 빼앗고, 마침내 남해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즉위하였다.⁹⁾ 이처럼 탈해는 토함산을 무대로 신라 왕경으로 진출하였거니와, 이는 토함산이 석씨 세력의 출발지였음을 말한다. 탈해왕은 죽은 뒤 토함산인 東岳에 묻혔고, 동악신이 되었다.¹⁰⁾ 그는 죽어서도 토함산과 밀접한 관계였던 것이다.

신라 왕족 김씨의 시조는 關智였다. 金城(또는 月城) 서쪽 始林의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나무에 금괘짝이 걸려 있고, 그 괘짝 속에서 알지가 태어났다고 한다.¹¹⁾ 비록 시림의 숲에서 탄생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남산의 북쪽 자락이다. 시림의 숲은 남산의 숲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신라 6부를 형성하고 소위 6성 씨족의 시조된 이는 모두 경주평야 부근의 산악에 내려왔다고 전한다. 『삼국유사』 권1, 기이, 신라시조

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에서는 그 이전인 소지마립간 9년 춘2월에 신궁을 세웠다고 하고, 나을을 始祖初生之地라고 하였다.

7) 前聞恭作, 「新羅王之世次と其の名につきて」, 『東洋學報』 15-2, 1925.

8) 『삼국유사』 권1,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 및 세주.

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탈해이사금 즉위조 ; 『삼국유사』 권1, 기이, 제4탈해왕.

10) 『삼국유사』 권1, 기이, 제4탈해왕.

1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탈해이사금 9년조; 『삼국유사』 권1, 기이, 김알지 탈해왕대.

혁거세왕 조에서는 진한 땅에 六村이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關川 楊山村의 村長은 謁平. 처음 瓢嵒峰에 내려왔으니 及梁部 李氏의 조상이 되었다. (고려 천복 5년 경자에 개명하여 中興部라 하였다).

둘째, 突山 高墟村의 촌장은 蘇伐都利. 처음 兄山에 내려왔으니 沙梁部 鄭氏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일러서 南山部라 한다.

셋째, 茂山 大樹村의 촌장은 俱禮馬. 처음 伊山(또는 皆比山)에 내려왔으니 漸梁部 또는 牟梁部 孫氏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일러서 長福部라고 한다.

넷째, 鶯山 珍支村의 촌장은 智伯虎. 처음 花山에 내려왔으니 本彼部 崔氏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일러서 通仙部라고 한다.

다섯째, 金山 加利村의 촌장은 祇沱. 처음 明活山에 내려왔으니 漢歧部(또는 韓歧部) 裴氏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일러서 加德部라고 한다.

여섯째, 明活山 高耶村의 촌장은 虎珍. 처음 金剛山에 내려왔으니 習比部 薛氏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일러서 臨川部라고 한다.

기사를 줄여 핵심만 열거하였는데, 6부의 시조가 모두 하늘로부터 산악에 내려왔다. 곧 瓢嵒峰, 兄山, 伊山(皆比山), 花山, 明活山, 金剛山이 바로 그곳이다. 그리고 이들은 楊山, 突山, 茂山, 鶯山, 金山, 明活山에 각각의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 후 노례왕 9년(32)에 처음으로 부를 두고, 또 6성을 내려주었다고 하나, 6부의 탄생이나 성씨의 실제 사용 시기를 감안하면 따르기 어렵다.

실성이사금 12년(413) 8월에 구름이 狼山¹²⁾에서 일어났다. 바라보니 누각과 같았고 향기가 가득 퍼져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왕이 말하기를 “이는 틀림없이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니는 것이니 응당 이곳 은 복 받은 땅이다”라 하였다. 이후부터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무 베는 일을 금하였다.¹³⁾ 이는 산악이 시조의 탄강지일 뿐 아니라 신선이 강림

12) 狼山の “狼”자를 ‘이리 랑’자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러 용례를 참고 하면 ‘동쪽 별 랑’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109쪽 참조.

1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실성이사금 12년조 “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

하여 노니는 福地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시조의 산악 탄강 설화는 가야에서도 찾아진다. 가야산신 正見母主는 천신 夷毗訶에 감응하여 대가야왕 惱室朱日과 금관국왕 惱室靑裔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伊珍阿歧王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首露王의 별칭이었다.¹⁴⁾ 곧 대가야 시조 이진아시왕과 금관국 시조 수로가 모두 가야산에서 탄생했다는 것이다.¹⁵⁾ 또한 海印寺 正見天王祠에는 정견이 大伽倻國 왕후로서 죽어서 山神이 되었다는 俗傳을 전한다.¹⁶⁾ 『삼국유사』 소재 『駕洛國記』에 따르면, 6가야의 시조는 황천으로부터 龜旨峯에 내려온 보랏빛 동아줄 끝,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합자 속의 큰 알로부터 탄생했다고 한다.¹⁷⁾ 이들 또한 산악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처럼 산악숭배는 신라, 가야 등에서 일찍부터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산신에 대한 제사가 행하여졌다. 산악에 대한 제사는 결국 그의 주재자인 산신에 대한 제사였던 것이다.¹⁸⁾ 이처럼 산악에 대한 숭배가 개별적으로 행해져 오다가 삼국통일 직후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중국식 제사제도로 개편되었다. 그래서 이를 대사·중사·소사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산악에 대해서는 3산 5악의 제도로 편제하였다. 그 뒤 왕경의 주요 산악에 대해서 방위에 따라 “왕경오악”을 설정하고 숭배하였다.

Ⅲ. 大·中·小祀 체계와 三山五岳

『삼국사기』 권32, 제사지에서는 三山五岳 이하 신라의 名山大川을 大·

郁然，久而不歇。王謂是必仙靈降遊，應是福地。從此後，禁人斬伐樹木”。

1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경상도 高靈縣 建置沿革.

15)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53쪽.

1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경상도 陝川郡 祠廟.

17) 『삼국유사』 권2, 기이2, 駕洛國記.

18)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197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207쪽.

中·小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대사에는 奈歷, 骨火, 穴禮의 삼산이 있으며, 중사에는 吐含山, 地理山, 鷄龍山, 太伯山, 父岳(公山)의 五岳을 비롯하여, 四鎮, 四海, 四瀆, 그리고 표제가 없는 6개의 山·城·鎮이 있었다. 또한 소사에는 霜岳, 雪岳 등 24개의 산이 있었다.

大祀, 三山 : 一奈歷[習比部], 二骨火[切也火郡], 三穴禮[大城郡].

中祀, 五岳 : 東 吐含山[大城郡], 南 地理山[菁州], 西 鷄龍山[熊川州], 北 太伯山[奈已郡], 中 父岳[一云 公山, 押督郡].

四鎮 : 東 溫洙懃[牙谷停], 南 海恥也里[一云 悉帝, 推火郡], 西 加耶岬岳[馬尸山郡], 北 熊谷岳[比烈忽郡].

四海 : 東 阿等邊[一云 斤烏兄邊, 退火郡], 南 兄邊[居柒山郡], 西 未陵邊[屎山郡], 北 非禮山[悉直郡].

四瀆 : 東 吐只河[一云 槩浦, 退火郡], 南 黃山河[歙良州], 西 熊川河[熊川州], 北 漢山河[漢山州].

표제 미상 : 俗離岳[三年山郡], 推心[大加耶郡], 上助音居西[西林郡], 烏西岳[結已郡], 北兄山城[大城郡], 淸海鎮[助音島].

小祀 : 霜岳[高城郡], 雪岳[遼城郡], 花岳[斤平郡], 鉗岳[七重城], 負兒岳[北漢山州], 月奈岳[月奈郡], 武珍岳[武珍州], 西多山[伯海郡 難知可縣], 月兄山[奈吐郡 沙熱伊縣], 道西城[萬弩郡], 冬老岳[進禮郡 丹川縣], 竹旨[及伐山郡], 熊只[屈自郡 熊只縣], 岳髮[一云 髮岳, 于珍也郡], 于火[生西良郡 于火縣], 三岐[大城郡], 卉黃[牟梁], 高墟[沙梁], 嘉阿岳[三年山郡], 波只谷原岳[阿支縣], 非藥岳[退火郡], 加林城[加林縣, 一本有靈岳山 虞風山, 無加林城.], 加良岳[菁州], 西述[牟梁] (『삼국사기』 권32, 志1, 祭祀)

대사 3산은 나력, 골화, 혈례를 1,2,3의 번호를 붙여 열거하였다. 중사인 五岳, 四鎮, 四海, 四瀆은 동남서북(중)의 순으로 제장을 열거하였으나 표제가 없는 6개의 山·城·鎮은 방위 표시가 없다. 소사 또한 방위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이 열거된 순서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제장을 기술하였다. 산악 외에 大川도 제사의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山岳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특징이 있었다. 또한 이들 소재지가 거의 경덕왕 16년(757) 12월 지명개혁 이전의 이름이어서,¹⁹⁾ 경덕왕대에는 3사의 체계가 갖추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대체로 대사의 삼산은 신라의 서울(경주)을 중심으로 한 경기에 위치하며, 소사의 諸山은 신라 영토 안의 각지에 흩어져 있다. 또한 중사의 五岳, 四鎮, 四海, 四瀆은 신라의 동남서북 四邊을 원칙으로 하고, 때로는 거기에 中이 끼이기도 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삼산이 신라의 핵이 되는 경주평야 중심의 사로국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오악은 전국을 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한다.²⁰⁾ 이 견해는 『삼국사기』 제사지 삼산오악에 대한 초기 설명으로 중요하다.

이 가운데 대사인 삼산과 중사 첫머리에 나오는 오악이 우선 주목된다. 서술 순서도 그러하지만, 삼산과 오악은 연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삼산과 오악은 언제 성립된 것일까? 삼산은 오악 등과는 달리 통일 이전 삼국시대 신라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또 원래의 성읍 국가 斯盧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신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그래서 삼산은 왕경 중심 지배자 집단의 제사 대상이었다는 것이다.²¹⁾ 또한 신라 건국기에 연합한 3소국의 시조 誕降之地²²⁾ 또는 신라 3부족의 시조 탄강지지가 내려오다 후대에 신라 호국신으로 화하여 大祀로 정착되었다는²³⁾ 해석이 있고, 나물마립간대 진한제국 병합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세력의 근거지로서 그 지역 토착민들의 聖山에 대한

19) 채미하,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祀典)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국립민속박물관, 2007;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2008, 308~310쪽에서는 대부분 신문왕 5년 이후부터 성덕왕 34년 이전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해진이 들어있다고 하여 흥덕왕 3년(828) 이후의 상황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20)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197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195쪽.

21) 李基白, 「新羅 三山の 意義」, 『韓國日報』, 1970.12.29일자; 『韓國古代史論-增補版-』, 일조각, 1995, 147쪽. 한편, 삼한 부락국가시대 蘇塗의 유풍으로 보면서 고려시대 三蘇 제도와 관련된다고 한 견해도 참고 된다.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498쪽.

22) 문경현, 「신라국 형성과정의 연구」, 『대구사학』 6, 1973; 『增補 新羅史研究』, 참, 2000, 106쪽;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39쪽.

23)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52쪽.

인식이 고대인들의 산악신앙과 결합하여 호국 산신의 처소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고²⁴⁾ 보기도 한다. 이들 견해를 따를 때 호국신의 처소로서의 삼산의 기원은 통일기 이전으로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이들 3소국(또는 3부족)의 신이 특정되어 大祀가 되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다.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삼산의 성립과 관련하여 『삼국유사』 권1, 기이, 김유신 조의 기사를 주목할 수 있다. 김유신이 18세 되던 진평왕 34년(612)에 검술을 닦아 國仙이 되었다. 이때 白石이란 자가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 김유신이 고구려·백제 두 나라를 치려고 밤낮으로 깊이 모의하니, 백석이 그 계획을 알고 敵國을 먼저 정탐한 후에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은밀히 제의하였다. 이에 김유신은 백석을 데리고 밤에 길을 떠났다. 고개 위에서 막 쉬고 있는데, 두 娘子가 나타나 김유신을 따라왔다. 骨火川에 이르러 유숙하니 또 한 남자가 문득 이르렀다.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니 남자들은 문득 신의 형상으로 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奈林·穴禮·骨火 등 三所의 護國之神입니다. 지금 적국의 사람이 郎을 유인하는데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므로 우리는 낭을 말리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²⁵⁾

말을 마치자 남자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김유신은 이 말을 듣고 놀라 쓰러졌다가 두 번 절하고 숲속에서 나왔다. 고구려 첩자 백석에게 유인되어 가던 김유신이 골화천에서 만난 세 여신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김유신은 骨火館에 유숙하면서 백석을 속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楸南이란 점쟁이를 억울하게 처형하자 추남이 죽으면서 내가 죽은 후에는 大將이 되어 반드시 고구려를 멸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날 밤 고구려왕의 꿈에 추남이

24) 金東胤, 「斯盧의 發展과 護國三神의 성립」, 한국고대사연구회 제8회 정기발표회, 1988.12.27 ;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9, 1989, 10쪽.

25) “我等奈林穴禮骨火等 三所護國之神, 今敵國之人, 誘郎引之, 郎不知而進途, 我欲留郎而至此矣”.

김유신의 아버지 舒玄公의 부인 품속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런 계획을 꾸미게 되었다고 백석이 고백하였다. 이에 김유신이 백석을 죽이고, 온갖 음식물을 갖추어서 세 여신에게 제사지내니, 모두 나타나서 제물을 흠향하였다.

김유신이 고구려로 향하다가 고개 위에서 쉬고 있을 때 처음 두 여신이 나타났고, 골화천에 이르러자 또 한 여신이 나타났다. 골화관에서 유숙한 뒤 왕경으로 되돌아왔다고 하므로 마지막에 나타난 신은 골화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나타난 두 여신은 나림과 혈례의 여신일 것이다.

신라의 三山은 “一 奈歷[習比部], 二 骨火[切也火郡], 三 穴禮[大城郡]”였다. 나력은 습비부에 있다고 하여 왕경임을 알 수 있지만, 골화와 혈례는 그 주변부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골화는 절야화군에 있어 오늘날의 영천이고, 혈례는 대성군으로 오늘날의 청도 지방이라고 한다.²⁶⁾ 그러나 혈례의 대성군 설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를 세밀히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대성군은 오늘날의 경주시 동북·동남 지역으로 추정되어²⁷⁾ 나력과 함께 왕경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삼산에는 나력, 골화, 혈례의 순으로 1,2,3의 서열이 정해져 있었다. 그 순서가 어디에서 기원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신라에 공헌한 사실이 기준일 것이지만, 신라에 복속된 순서나 세력의 우열 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삼산의 으뜸인 나력은 奈林과 같고, 오늘날의 狼山에 비정되고 있다.²⁸⁾ 그런데 김유신에게 나타난 3낭자들은 자신들을 奈林·穴禮·骨火

26) 『삼국사기』 권34, 지리지 良州 大城郡. 그래서 청도 梟山(오리산 烏禮山) 설이 제기되었다(李丙巖, 『原文并譯註 三國遺事』, 광조출판사, 1973, 219쪽; 『국역 삼국사기』, 1977, 499쪽).

27) 吐含山, 北兄山, 三岐山 등이 포함된 대성군은 경주시 동쪽(동남, 동북) 지역에 비정되는데 혈례를 경주시 안강읍 魚來山에 비정한 견해가 주목된다(金侖禹, 「新羅時代大城郡에 관한 考察 -新羅王都 周圍의 所在郡縣에 대한 一考察-」, 『新羅文化』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7). 그러나 여기에 동해안 지역까지 포함시킨 연구도 있다(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40쪽).

28)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1977, 499쪽. 한편, 나력이 始祖初生之處로 소지마립간 9년 신궁이 설치된 奈乙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奈乙은 곧 蘿井으로서(『삼국유사』

3곳의 호국신이라고 소개하였다. 여러 산에 호국신이 있었을 것이지만, 자신들은 특별히 이들 3곳의 호국신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3호국신은 이미 대사 3산의 신으로서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단지 3곳의 신으로서만 나타난 것일까? 전자라면 대·중·소사의 도입시기는 진평왕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약하다. 아직 중국의 문물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만약 후자의 의미라면 대·중·소사의 3祀 제도는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된다.

『삼국사기』 제사지의 3산의 순서는 奈歷·骨火·穴禮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奈林·穴禮·骨火라고 하여 골화와 혈례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필자는 후자가 옳으며 그 순서에 유의한다면, 김유신이 나아간 행로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王京에서 지금의 영천인 骨火로 갔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3신은 이미 특정된 신으로서의 3신이 아니라 김유신의 행로에 위치한 주요 산악의 3신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²⁹⁾

김유신은 고구려의 첩자 백석에게 속아 적국에 포로가 될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나림, 혈례, 골화의 3신의 도움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 김유신은 관직에 나아가 押督州都督, 上大等, 大幢大將軍, 大角干, 太角干 등 주요 직책과 관등을 역임하면서 백제, 고구려 정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태종무열왕, 문무왕을 도와 신라 삼국통일의 元勳이 되었던 것이다. 신문왕대에 태종묘호 사용을 둘러싸고 당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때 신라는 태종무열왕이 良臣 김유신을 얻어 일통삼한의 위업을 이루었음을 내세운³⁰⁾ 것을 보더라도 당시 김유신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곧 나림, 혈

권1,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 낭산이 아닌 楊山이라는 설과(金東胤, 『斯盧의 發展과 護國三神의 성립』, 한국고대사연구회 제8회 정기발표회, 1988.12.27 ;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9, 1989, 7쪽) 楊山의 ‘楊’자가 ‘양’과 ‘랑’ 두 가지로 발음된다고 하여 낭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109~110쪽). 그래서 전자가 양산을 남산의 한 줄기로 파악한 반면, 후자는 남산 북쪽의 작은 산으로 이해하였다.

29) 종래의 많은 연구자들은 삼국시대에 삼산의 제도가 성립했다고 이해하였다.

례, 골화의 3산의 여신은 삼국통일을 거치면서 신라를 鎮護한 호국신으로서 크게 중시되었고, 당나라의 제사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국가 최고의 제사인 大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김유신이 화랑이었던 시절 곧바로 이들 3신이 대사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사가 된 것은 김유신이 성장하여 삼국통일의 일등공신이 되고 난 뒤의 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신이 호국신으로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삼국통일을 달성한 문무왕 16년(676) 이후일 것이다.³¹⁾

그러면 三山 성립의 하한은 언제였을까? 문무왕릉비에 “映三山之闕” “三山表色” 등의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三山’은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말하는 大祀인 三山 곧 奈歷, 骨火, 穴禮를 말한다고 하겠다. 기왕에는 삼산과 오악의 성립을 하대 초인 宣德王代(780~785) 무렵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³²⁾ 문무왕릉비가 건립된 신문왕 7년(687)³³⁾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삼국통일 이전 각처의 聖山에는 護國神이 존재하였을 것이나 나립, 골화, 혈례의 3곳의 호국신이 三山神으로 결합되고 대사에 편입된 것은 삼국통일 이후인 7세기 후반이라고 하겠다.³⁴⁾

30)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신문왕 12년조. 한편, 『삼국유사』 권1, 기이, 태종춘추공조에서는 聖臣 金庾信이라고 하였다.

31) 김유신이 문무왕 13년(673) 7월 1일 사망한바(『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이 무렵까지 시기가 올라갈 여지도 있다.

32) 洪淳昶, 「新羅 三山五岳에 대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신라민속의 신연구』 4, 신라문화선양회, 1983, 42쪽, 56쪽, 63쪽.

33) 문무왕릉비의 건립 시기는 신문왕 2년(682) 7월 25일로 흔히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海東碑攷』가 발견되면서 신문왕 7년(687) 8월 25일 또는 10월 25일로 이해되고 있다(李泳鎬, 「新羅 國學의 成立과 變遷」, 『歷史教育論集』 57, 역사교육학회, 2015). 한편, 삼산의 성립을 昔氏王系初(185~253) 이후 진평왕 이전의 사실로 소급 추정하기도 하나(辛鍾遠, 『三國史記』 祭祀志研究, 『史學研究』 38, 한국사학회, 1984, 22쪽, 38쪽) 따르지 않는다.

34) 삼산의 삼국통일 이전 성립을 부정하고 삼국통일 이후 오악과 함께 체계화되었다는 견해가 참고된다. 洪淳昶, 「新羅 三山五岳에 대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신라민속의 신연구』 4, 1983, 42쪽.

그런데 三山은 백제에도 있었다. △山³⁵⁾, 吳山, 浮山이 그것이다. 사비시대의 일로 추정되는데, 국가가 전성했을 때는 각기 神人이 그 위에 살아서 날아 서로 왕래함이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³⁶⁾ 여기서의 삼산이 신라의 대사 삼산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백제에서도 산악을 중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국가에서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이라면 신라보다 시기가 빨랐다고 하겠다.

삼산이 성립된 뒤 대사로서 가진 위상은 다음 기사에서 잘 살필 수 있다.

(1)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에 五岳과 三山の 신들이 때로는 혹 대궐 뜰에 나타나 [왕을] 모셨다.³⁷⁾ (『삼국유사』 권2, 기이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2) 제36대 혜공왕 대력 14년 기미(779) 4월에 갑자기 화오리 바람이 庾信公의 무덤에서 일어났다. … “신이 정치를 돕고 평생동안 어려운 시국을 구하고 삼국을 통합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제 혼백이 되어서도 나라를 수호하며, 재앙을 물리치고 환난을 구제하려는 마음은 잠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오나 지난 경술년에 신의 자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였고, 임금이나 신하들은 저의 공적을 생각지 않습니다. 신은 차라리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나라를 위해] 애쓰지 않을가 하니, 바라옵건대 왕께서는 허락해주시시오” 라고 하였다. … 세 번이나 청해도 세 번 다 듣지 않자 화오리바람이 돌아가고 말았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大臣 金敬新을 보내 金吾新의 무덤에 가서 사과하였으며, 공을 위해 功德寶를 세우고 발 30결을 鷲仙寺에 내려서 그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이 절은 金公이 평양을 토벌한 뒤에 복을 빌기 위하여 세웠던 것이기 때문이다. 미추의 영혼이 아니었던들 金公의 노여움을 막지 못했을 것이므로, 왕이 나라를 수호한 힘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덕을 생각하여 三山과 함께 제사지내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 서열을 五陵 위에 두어 大廟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동상 권1, 기이, 미추왕 죽엽군)

경덕왕은 24년 동안 장기간 재위하였거니와, 오악과 삼산의 신들이

35) 흔히 日山으로 판독하고 있으나 ‘日’ 자는 확실치 않다고 한다. 강종훈, 『한국고대사, 사료비판론』, 교육과학사, 2017, 76~77쪽.

36) 『삼국유사』 권2, 기이2, 南扶餘 前百濟 北扶餘

37)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그를 모셨다고 한다. 이는 경덕왕과 삼산, 오악의 신들이 밀접한 관계였음을 말한다. 물론 이때의 오악은 『삼국사기』 제사지에 명시된 오악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혜공왕은 경덕왕 다음의 왕인데 재위 15년(779) 4월에 김유신의 혼령이 나타나 미추왕릉에 가서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추왕은 김씨로서 처음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능을 始祖堂으로 일컬었다. 그런데 삼국통일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김유신의 혼령이 미추왕에게 항의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미추왕의 혼령이 이를 무마함으로써 사태는 진정되었다. 그러나 그 공적으로 미추왕릉은 삼산과 동등하게 제향되고, 신라의 첫 임금 혁거세의 능인 오릉보다 위에 두어 대묘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삼산이 일반 왕릉을 넘어선 신라 최고의 위상을 가졌으며, 대사로서 숭배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널리 지적된 바와 같이, 산악에 대한 제사는 그 산신에 대한 제사였다. 신라 중사의 岳·鎮·海·瀆이 중국 중사의 그것을 본받은 것인데 비해, 3산은 신라 고유의 제도였다.³⁸⁾ 산악을 숭배하여 가장 격이 높은 대사로 편제한 것이다. 중국 고대에는 시대별로 대사·중사·소사의 대상이 달랐다. 『周禮』에서는 天地와 宗廟가 대사였고, 수에서는 昊天上帝, 五方上帝, 日月, 皇地祇, 神州社稷, 宗廟가 대사였다. 또한 당에서는 昊天上帝, 五方上帝, 皇地祇, 神州, 宗廟가 대사였다.³⁹⁾ 신라처럼 산악을 대사로 편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산악을 대사로 편제하고 3곳을 설정한 것은 신라만의 특징이었다고 할 것이다.⁴⁰⁾

삼산 숭배가 신라 고유의 제도였다면, 오악은 중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周禮』에서는 日月星辰, 社稷, 五祀, 五岳이 次祀(中祀)였고, 수에서는 星辰, 五祀, 四望이 中祀였다. 그리고 당에서는 日月, 星辰, 社稷, 先

38)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42쪽.

39) 채미하,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祀典)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2007;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2008, 311쪽.

40) 하필이면 3의 수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의문이다. 3자 숭배는 단군신화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는데, 환인·환웅·단군, 天符印 3개, 풍백·우사·운사, 三危太伯, 3·7일, 인간 360餘事, 1908세 등이 그것이다. 또한 3한, 신라 6부, 6두품 등도 마찬가지다.

代帝王, 嶽, 鎮, 海, 瀆, 帝社, 先蠶, 孔宣父, 齊太公, 諸太子廟가 중사였다.⁴¹⁾ 신라의 악·진·해·독은 당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요컨대 신라 삼산은 김유신과 관련된 호국 3신에서 기원하였다. 삼산과 오악은 모두 신라 산악숭배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대사와 중사로 편제한 것은 삼국통일 후 당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다.

IV. 王京五岳의 성립과 北岳 金剛山

삼국통일 후 신라에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동남서북중의 5방에 따른 오악이 있었다. 또한 수도 왕경에도 방위에 따른 오악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그래서 흔히 전자를 “新羅五岳”⁴²⁾, 후자를 “王京五岳”⁴³⁾으로 부른다. 여기서 그 명칭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금석문에서 남악과 북악의 사례가 보인다.

南岳: 대력 14년 10월 21일 南岳 斷俗之寺에서 입적하였다⁴⁴⁾ (산청 단속사 신행선사비)

이 때 洪陟大師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西堂에게서 心印을 증득하였다. 南岳에 와서 발을 멈추니 ... 고국에 돌아온 사람은 앞에서 말한 北山의 道義와 南岳의 洪陟⁴⁵⁾ (하략)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제자 粹忍과 義光이 각기 南岳의 북쪽 들에 살았는데 ... 할아버지는 西堂

41) 채미하,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祀典)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2007;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2008, 311쪽.

42)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197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한편, 주보돈, 「신라 狼山의 歷史性」, 『新羅文化』 44, 2014에서는 ‘지방오악’으로 부르고 있다.

43) 문경현 외, 『新羅王京五岳研究』, 2004.

김병곤,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新羅文化』 43, 2014, 367쪽.

주보돈, 「신라 왕경5악의 형성과 금강산」, 『신라 왕경의 이해』, 주류성, 2020, 332쪽.

44) “大曆十四年 十月廿一日 歿於南岳斷俗之寺”.

45) “有洪陟大師 亦西堂證心 來南岳休足 ... 東歸則前所敍北山義 南岳陟”.

智藏이고 아버지는 南岳 洪陟이었다.⁴⁶⁾ (남원 심원사 수철화상탑비)
 北岳: 듣건대 대사는 당시 천하 사람들의 존송을 받고 해우(海隅;신라)에서 독
 보적 존재요, 北岳의 북쪽에 오래도록 거처하며 東山의 법을 가만히 전수
 했다고 한다.⁴⁷⁾ (창원 봉림사 진경대사탑비)

산청 단속사 신행선사비는 헌덕왕 5년(813)에 건립되었으며,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는 진성여왕 7년(893) 무렵, 심원사 수철화상탑비는 효공왕대(897~912), 창원 봉림사 진경대사탑비는 경명왕 8년(924)에 각각 건립되었다. 모두 9세기에 제작된 금석문물이다. 여기서 남악은 지리산을 말하며,⁴⁸⁾ 북악은 태백산을 가리킨다. 곧 남악과 북악은 “신라오악”의 산악을 말하며, “왕경오악”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금석문 상으로는 신라오악의 일부만 확인된다고 하겠다.

종래 삼국시대 경주평야를 둘러싼 오악이 삼국통일 후 국토의 四至에 있는 전국적인 5악으로 확대되었다고 한 견해가 있었다.⁴⁹⁾ 그러나 삼국시대의 경우 왕경오악의 존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⁵⁰⁾ 대신 왕경의 4방 또는 5방의 산악⁵¹⁾에 대한 관념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금석문에서 南山, 北山, 西山이 보이기 때문이다.⁵²⁾

46) “弟子粹忍義光各居南岳北埜 … 祖西堂藏 父南岳陟”.

47) “聞大師 時尊天下 獨步海隅 久栖北岳之陰 潛授東山之法”.

48) 『삼국유사』 권5, 피은8, 信忠掛冠 “景德王 王即孝成之弟也. 二十二年癸卯, 忠與二友 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 落髮爲沙門. 爲王創斷俗寺居焉” 참조. 南嶽이 산악이 아닌 중국 선종의 7대 조사 南嶽懷讓(677~744)을 가리키는 경우는 여럿 있다.

49)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197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207쪽.

50) 『삼국사기』 권41, 김유신 열전에 화랑시절 김유신이 수도한 中嶽石堀이 보인다. 진평왕 33년(611)에 그렇게 불렸는지 후대적 표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文暉鉉, 『所謂 中岳石堀에 대하여』, 『東洋文化研究』 7, 경북대, 1980; 『증보 신라사연구』, 2000에서는 이를 팔공산으로 추정하면서 후자로 설명하고 있다.

51) 중국에서 嶽는 춘추시대 큰 산을 관리하던 관직명으로, 山이 嶽이 됨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며 산신에게 제례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전인초, 「오악(五嶽)의 신화 전설」, 『人文科學』 88, 2008,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5쪽.

52) 같은 이름이 사용되더라도 왕경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제외했다. 예컨대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에 北山의 道義가 나오지만, 이때의 북산은 설악산 陳田寺를

南山: 辛亥年二月廿六日 南山新城作 節如法 … (남산신성비)

貞明 원년 봄에 대사는 서둘러 참선하는 무리들을 거느리고 서울에 이르니 지난 날과 같이 명하여 南山 實際寺에 안거하게 하였다.⁵³⁾ (안동 태자사 낭공대사비)

北山: 유사가 곧 모자를 벗기고 그 손을 뒤로 묶은 다음 관아의 뜰로 끌고 가서 큰 소리로 劍命을 고하였다. 참수할 때 목 가운데에서 흰 우유가 한 마장이나 솟구치니, 이 때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렸다. 사람과 물건이 애통해 하고 동식물이 불안해하였다. 길에는 곡소리가 이어졌고 우물과 방앗간에서는 발길을 멈추었다.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루었다. 시신을 北山에 안장하고 西山에 사당을 세웠다.⁵⁴⁾ (이차돈순교비)

西山: 위와 같음

南山은 중고기인 진평왕대와 신라 말기의⁵⁵⁾ 사례이고, 北山과 西山은 현덕왕대의 사례이다. 남산이란 명칭은 신라시대부터 불리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진평왕 13년(591)에 건립된 남산신성비에서 처음 확인되고 있다. 이를 왜 남산으로 불렀을까?

우선 이를 동서남북의 사방 가운데 남방의 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산이란 명칭을 사용할 때 이미 왕경의 동서남북의 4방의 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⁵⁶⁾ 당나라의 終南山을 南山이라고도 부르듯이 이를 본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남산이 수도 西安의 남쪽에 위치하였고, 신라의 남산 또한 왕경의 남쪽에 위치한 산임을 감안하면, 방위에 따라 붙인 산명이 분명하다고 하

가리킨다.

53) “至貞明元年春 大師遽携禪衆來至 帝鄉依前命南山實際寺安之”.

54) “王□告司□於貳子□□而□揮淚北面, 司則脫冠反縛其手, 致於官庭, 告吳劍命, 級時頸中 白乳一丈, 當尔之時, 天雨名花, 地爲六躍, 人物譟慟, 動植不安, 路中携哭, 井確停足, 揮淚送殯, 葬屍北山 立廟西山”.

55) 「안동 태자사 낭공대사탑비」의 건립연대는 고려 광종 5년(954)이다. 그러나 비문의 찬술 시기는 신라시대로서 경명왕 1년(917) 11월 改葬한 이후이다.

56) 신라 국도에 대한 四方意識은 昌寧 眞興王拓境碑의 四方軍主, 황초령 및 마운령 진흥왕순수비의 四方拓境, 그리고 신라의 국호가 德業日新 網羅四方을 뜻한다고 한데서 엿볼 수 있다.

졌다.

또한 이차돈순교비에서 북산과 서산이 확인되는바 북산은 금강산⁵⁷⁾, 서산은 선도산⁵⁸⁾에 비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차돈의 시신은 금강산인 北山의 西嶺에 안장되었으므로⁵⁹⁾ 서산은 이곳 西嶺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⁶⁰⁾ 그렇다면 여기에 왕경의 동쪽에 위치한 산과 서쪽에 위치한 산, 나아가 중앙에 위치한 산을 포함한다면, 동서남북(중)의 사방 또는 오방의 산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산의 사례를 보면, 9세기 초 현덕왕대에도 왕경오악은 岳이 山으로 표기되는 일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왕경의 4방 또는 5방 산악의 기원은 진평왕 13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남산에 관한 사료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신해년 2월 26일 南山新城을 만들고, 이때에 법과 같이 만든 후 3년 안에 붕괴되면 죄로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맹세케 한다.⁶¹⁾ (남산신성비)

가을 7월에 南山城을 쌓았는데, 둘레가 2,854보 였다.⁶²⁾ (동상 권4, 신라본기 진평왕 13년조)

봄 정월에 南山新城에 長倉을 지었다.⁶³⁾ (동상 권6, 신라본기 문무왕 3년조)

가을 8월에 東宮을 짓고 궁궐 안팎 여러 문의 이름을 처음 정하였다. 四天王寺가 완성되었다. 南山城을 증축하였다.⁶⁴⁾ (동상 권7, 문무왕 19년조)

新月城 남쪽에 南山城이 있으니 둘레가 2,804보였다.⁶⁵⁾ (동상 권34, 잡지, 지리1)

57)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281쪽.

58)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74쪽.

59)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 위촉명신 “遂乃葬北山之西嶺(卽金剛山也)”.

60) 박방룡, 「異次頓 舍人 墓와 祠堂에 대한 斷想」, 『신라문화유산연구』 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9, 8~9쪽.

61) “辛亥年二月廿六日 南山新城作 節如法以作後三年崩破者罪敎事爲聞敎令誓事之”.

62) “秋七月,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四步”.

63) “春正月, 作長倉於南山新城”

64) “秋八月, 創造東宮, 始定內外諸門額號. 四天王寺成. 增築南山城”.

65) “新月城北有南山城, 周二千八百四步”.

別本에 이르기를, 建福 8년 辛亥(591)에 南山城을 쌓았는데, 둘레가 2,800보라고 하였다. 곧 진평왕 때에 처음으로 쌓았던 것을 이때 중수한 것이다.⁶⁶⁾ (동상 권 2, 기이2, 문호왕 법민)

남산이란 이름이 들어간 성으로 남산성이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진평왕 13년(591) 7월에 남산성을 쌓으니 둘레가 2,854보였고, 문무왕 19년(679) 8월에 이를 증축하였다. 또한 『삼국유사』 권2, 기이2, 문호왕 법민 조에서는 건복 8년 신해(591)에 남산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800보였다. 진평왕 때에 처음으로 쌓았던 것을 문무왕대에 중수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남산성 축조에 대해서는 축성비가 남아 있으니, 남산신성비가 그것이다.

남산신성비는 1934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0기가 확인되었다. 파편만 발견된 것도 있지만, 글자가 많이 남은 비석의 경우 서두에는 공통적으로 신해년 2월 26일 남산신성을 만들고, 법과 같이 만든 후 3년 안에 붕괴되면 죄를 주기로 한다고 맹세하였다.

우선 첫머리의 신해년이 진평왕 13년인 591년임은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⁶⁷⁾ 그런데 당대의 기록인 이 비석에서는 “南山新城”이라 한 반면, 『삼국사기』에서는 “南山城”과 “南山新城”의 두 가지로 표기하였다. 기왕의 연구자들은 『삼국사기』의 남산신성 사례를 간과한 채 비석의 “新城”을 “새 성”으로 해석하면서, 舊城의 존재를 상정하였다. 그래서 일찍이 진흥성은 남산성이 진평왕 이전에 존재했고, 이때에 이르러 대대적으로 修築 내지는 改築하여 면모가一新되었으므로 “新城”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진평왕 13년 이후에는 둘이 혼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⁶⁸⁾ 이 견해를 따른다면 남산성과 남산신성은 동일한 곳에 선후하

66) “別本云, 建福八年辛亥,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步, 則乃眞平王代始築, 而至此乃重修爾”.

67) 다만 『삼국사기』에서 7월로 정리한 것은 남산신성비의 날짜가 착공 일인데 비해 『삼국사기』의 그것은 완공 시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秦弘燮, 「남산신성비의 종합적 고찰」, 『역사학보』 26, 1965, 38쪽 ; 『三國時代의 美術文化』, 1978.

68) 秦弘燮, 「남산신성비의 종합적 고찰」, 『역사학보』 26, 1965 ; 『삼국시대의 미술문화

여 존재한 셈이 된다.

박방룡 또한 新城이란 명칭을 근거로 舊城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는 현재 남아 있는 남산신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개축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이 이전 시기의 토성이 불과 500미터의 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등에서 남산성과 남산신성이 동일한 곳이 아니라 장소를 달리하며, 舊城은 곧 南山土城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⁹⁾

새로이 석성을 수축하면서 新城이라 명명한 것은 남산산성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주보돈은 남산신성 건설은 단순히 防禦山城 축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논단하였다. 진평왕은 54년간 재위하면서 신성가족 의식을 바탕으로 석가불신앙을 내세우는가 하면, 국가통치체제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新城이라 한 데는 그 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진평왕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표방이나 새로운 중앙집권체제의 성립과 출발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⁷⁰⁾

이상의 견해들은 토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유의할 만하다. 그러나 남산신성이 정식 명칭이며, 성을 새로 수축하면서 “新城”이라 한 사례가 달리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은 타당하지만, 남산성과 남산신성이 진평왕 13년 신해년(591)에 축조된 같은 성임을 간과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新城을 都城制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⁷¹⁾ 중국의 도성은 단일 성곽, 二重 성곽, 三重 성곽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二重의 경우에는 안쪽을 子城(牙城, 小城), 바깥쪽을 羅城(大城)이라 하였

』, 1978, 153~154쪽.

69) 朴方龍, 「慶州 南山新城의 研究」, 『考古歷史學志』 10,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4, 538~539쪽.

朴方龍, 『新羅都城』, 학연문화사, 2013, 52~55쪽.

70) 朱甫墩, 「南山新城의 築造와 南山新城碑 -第9碑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10·11합집, 1994; 「南山新城의 축조와 南山新城碑 제9비」, 『금석문과 신라사』, 2002, 257~269쪽.

71) 李泳鎬,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國邑에서 都城으로』 26, 신라문화선양회, 2005, 194쪽.

다. 또 三重의 경우에는 제일 안쪽의 것을 皇城, 그 다음을 白城(內城, 裏城), 맨 바깥쪽을 新城(外城)으로 불렀다고 하기 때문이다.⁷²⁾ 더구나 남산신성에는 미곡과 병기를 저장한 長倉이 설치되어 있었고,⁷³⁾ 남산신성을 “新城”⁷⁴⁾으로 부르는 일도 잦았다.⁷⁵⁾ 그렇다면 궁성인 월성과 남산신성을 아울러서 皇城, 內城, 新城의 관계로 파악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⁷⁶⁾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山川 조에 따르면, 당시 경주지역에는 22개의 山과 2峴, 6嶺, 1谷, 2浦, 5川, 1淵, 1池가 있었다. 22개의 산 가운데 주의를 요하는 산은 다음과 같다.

狼山： 府의 동쪽 9리에 있다. 鎭山이다.

吐含山： 부의 동쪽 30리에 있다. 신라 때에는 ‘東嶽’이라고 부르고, ‘中祀’를 거행하였다.

金剛山： 부의 북쪽 7리에 있다. 신라 때에는 ‘北嶽’이라 불렀다.

仙桃山： 부의 서쪽 7리에 있다. 신라 때에는 ‘西嶽’이라 불렀다. 혹은 西述·西兄·西鳶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含月山： 부의 동쪽 45리에 있다. 신라 때에는 ‘南嶽’이라 불렀다.

金鼈山： 南山이라고도 한다. 부의 남쪽 6리에 있다.

兄山： 安康縣 동쪽 21리에 있다. 신라 때에는 北兄山이라고 부르고, ‘中祀’를 거행하였다.

72) 加藤繁, 「宋代に於ける都市の發達に就いて」, 『支那經濟史考證(上)』, 東洋文庫, 1965 및 山根幸夫(李相楮 譯), 「中國의 中世 都市」, 『東洋 都市史 속의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128~129쪽.

73) 『삼국유사』 권2, 기이2, 문효왕 법민 “王初卽位, 置南山長倉, 長五十步, 廣十五步, 貯米穀兵器, 是爲右倉, 天恩寺西北山上, 是爲左倉”.

74) 『삼국사기』 권32, 잡지 제사 “新城北門祭八楮” “新城北門祭中農”.

『삼국사기』 권46, 열전 강수 “王命有司 歲賜新城租一百石”.

『삼국유사』 권2, 기이2, 혜공왕 “新城長倉火燒”.

75) 필자는 남산신성을 “남산의 새 성”이 아닌 “남산에 있는 왕궁인 新城”으로 이해한다.

76) 남산신성과 궁성인 月城의 관계가 궁금한데, 남산신성 축조가 좁은 月城의 기능을 보조하였을 것이라든가(박방룡, 「都城·城址」, 『韓國史論』 15, 국사편찬위원회, 1985, 380쪽), 유사시 월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함이라는 견해(박방룡, 『신라도성』, 학연문화사, 2013, 79쪽)가 참고 된다.

위의 기록에서는 신라 때의 동악 토함산, 서악 선도산, 남악 함월산, 북악 금강산을 열거하면서 中祀로 토함산과 형산을 지적하였다. 경주의 진산인 狼山을 中岳이라고 한다면,⁷⁷⁾ 이들 산악이 왕경오악을 형성하였다고 하겠다. 토함산과 형산은 중사의 대상이었다.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토함산은 동악으로 중사의 祭場이었고, 형산은 표제 미상의 제장으로 또한 중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의 사실이 그릇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함월산이 남악임이 유의된다. 더구나 부에서의 거리가 토함산은 府東 30리, 함월산은 府東 45리, (북)형산은 안강현 동쪽 21리에 있었다.⁷⁸⁾ 토함산과 함월산이 부에서의 거리가 다를 뿐 방향이 같다는 점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는 오류일까? 후술하듯이, 남산이 남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서남북의 4방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의 기록은 누락된 부분은 있지만, 그 자체로는 정확한 자료가 아닐까 생각된다.

더욱이 『慶尙道地理志』 慶州府 조에서는 名山이 셋 있으니 東嶽, 西嶽, 北嶽이라고 하였다.⁷⁹⁾ 여기서 남악이 보이지 않음이 유의된다. 왕경에 4악이 있었다면 남악이 빠졌으며, 5악이 있었다면 남악과 중악이 빠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三國遺事』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산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또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 南山神이 임금의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는데 죄우의 신하들은 보지 못하고 왕이 홀로 보았다. … 또 金剛嶺에 행차하였을 때에는 北岳神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⁸⁰⁾ (『삼국유사』 권2, 기이2, 처용랑 망해사)

헌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하였을 때는 남산신이, 금강령에 행차하였을 때는 북악신이 춤을 추었다. 왕이 행차한 곳의 산신이 나타나 춤을 춘

77) 문경현,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108쪽 등 참조.

78) 明活山 또한 府東 11리에 있어 방향이 같다.

79) “名山三 東嶽, 西嶽, 北嶽”.

80)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 又幸於金剛嶺時 北岳神呈舞”.

것이다. 여기서 금강산을 북악이라 하면서도 남산은 남악이라 하지 않았다. 이는 남산이 남악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⁸¹⁾

그러면 왕경오악은 언제 형성되었을까? 왕경오악에 관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살펴면서 이에 접근해보기로 하자.

먼저 동악이다. 동악은 석탈해와 경덕왕대의 승려 법해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하루는 탈해가 東岳에 올랐다가 돌아오는 길에 白衣를 시켜 물을 떠 오게 하였다. … 지금 東岳 속에 우물 하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遙乃井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우물이다. (『삼국유사』 권1, 기이, 제4대 탈해왕)⁸²⁾

재위 23년만인 建初 4년(79) 기묘에 세상을 떠났다. … 神이 다시 말하기를, “내 뼈를 東岳에 안치하라” 하였다.⁸³⁾ (동상 권1, 기이, 제4대 탈해왕)

왕이 돌아가자 末召의 跣井丘 중에 수장하였다. 뼈를 빗어 東岳에 안치하니 지금의 東岳大王이다.⁸⁴⁾ (동상 왕력, 제4 탈해니질금)

다음해 갑오년(754) 여름에 왕이 또 대덕 법해를 황룡사에 청해 『화엄경』을 강론하게 하였다. … 바로 창해를 기울여서 東岳을 잠기게 하고 京師를 떠나려가게 하는 것도 또한 어려운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⁸⁵⁾ (동상 권4, 의해5, 현유가 해화엄)

먼저 제4대 탈해왕과 동악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탈해가 東岳에 올랐고, 그가 죽자 그의 뼈를 동악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라오악의 성립을 감안하면 탈해왕대에 이미 동악을 비롯한 왕경 4악 또는 5악이 형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뼈를 동악에 안치한 때를 문무왕대라 한 일설이 주목된다.⁸⁶⁾ 동악이 후대적 표기이거나 하한 시점일

81)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東京雜記』, 『慶州府邑誌』, 『慶州邑誌』, 『東京通志』, 『金烏勝覽』 등의 지리지에서는 한결같이 함월산을 남악으로 기록하고 있다.

82) “一日吐解登東岳 迴程次 令白衣索水飲之. 白衣汲水. 今東岳中有一井 俗云遙乃井是也”.

83) “在位二十三年 建初四年己卯崩. … 神又報云 我骨置於東岳. 故令安之”.

84) “第四脫解尼叱今 … 王崩 水葬末召跣井丘中. 塑骨安東岳 今東岳大王”.

85) “明年甲午夏, 王又請大德法海於皇龍寺, 講華嚴經 … 直使傾滄海, 襄東岳, 流京師, 亦非所難”.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의 문물이 많이 유입된 시기라는 점에서 유의할 만하다.

경덕왕 13년(754) 법해는 대현보다 법력이 우위임을 말하면서 바닷물로 동악을 잠기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동악 토함산은 신라오악의 하나인 동시에 왕경오악의 하나였으므로, 여기서의 동악이 왕경오악의 그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이 무렵에는 당 문화의 수용이 매우 활발한 때로서 토함산이 왕경오악의 동악으로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서악은 선도산으로 다음과 같이 사료에 나타난다.

처음 문희의 언니 寶姬가 西岳에 올라가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수도에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⁸⁷⁾ (『삼국유사』 권1, 기이, 태종춘추공)

(원성왕대)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따라갔다. 西山 기슭에 이르러 한 초가집으로 들어갔다.⁸⁸⁾ (동상 권5, 감통7, 김현감호)

제54대 景明王代에 이르러 공을 추봉하여 興虎大王이라 하였다. 능은 西山 毛只寺 북쪽, 동으로 향해 뻗은 봉우리에 있다.⁸⁹⁾ (동상 권1, 기이, 김유신)

김유신의 누이 문희는 김춘추와 혼인하였다. 이들 사이에서 장남인 문무왕이 진평왕 48년(626)에 태어났으므로, 혼인은 한해 전인 진평왕 47년(625) 무렵이고, 이때 김춘추의 나이는 23세였다.⁹⁰⁾ 따라서 위의 설화는 그 이전 어느 때의 이야기였다고 하겠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진평왕대부터 서악이 존재하고 왕경오악이 존재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후대의 표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라오악도 성립하기

86) 『삼국유사』 권1, 기이, 제4대 탈해왕 조의 세주 “一云 崩後二十七世文虎王代 調露二年庚辰三月十五日辛酉夜 … 有老人貌甚威猛曰 ‘我是脫解也. 拔我骨於踰川丘 塑像安於土舍山’ 王從其言. 故至今國祀不絕 即東岳神也云”.

87) “初文姬之姊寶姬 夢登西岳捨溺 潑滿京城”.

88) “女將還 現從之. 女辭拒而強隨之 行至西山之麓 入一茅店”.

89) “至五十四景明王 追封公爲興虎大王. 陵在西山毛只寺之北 東向走峰”.

90) 李泳鎬, 「新羅의 王權과 貴族社會 -중대 국왕의 혼인문제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22, 2003;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45쪽.

전이기 때문이다. 김현감호 조나 김유신 조의 서산은 서악이 후대에도 흔히 서산으로 불리기도 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⁹¹⁾

다음은 南岳에 대해서이다.

문무왕대에 중 廣德과 嚴莊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 광덕은 芬皇西里에 은거하며 쥔신을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삼으며 처자를 끼고 살았고, 엄장은 南岳에 암자를 짓고 살면서 나무를 불태워 힘써 경작하였다.⁹²⁾ (『삼국유사』 권5, 신주6, 廣德 嚴莊)

문무왕대에 승려 광덕과 엄장이 있었다. 이들은 먼저 극락으로 가는 사람을 서로 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광덕은 분황사 서쪽 마을에 살고, 엄장은 남악에 살았다고 한다. 여기서 남악이란 이름에 유의한다면, 왕경오악의 기원은 문무왕대가 다시 주목된다. 신라오악보다는 왕경오악으로서의 남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따르는 한 함월산에 비정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남산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많은 기사가 남아 있다.

宮室을 南山 서쪽 기슭에 짓고는 두 명의 신성한 아이를 모셔 길렀다.⁹³⁾ (『삼국유사』 권1,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

진덕왕 때에 알천공·임종공·술종공·무림공·유신공이 있었는데, 南山 丐知巖에 모여 나라의 일을 논의하였다. (동상 권1, 기이, 진덕왕)⁹⁴⁾

하루는 善德王이 南山에 거둥할 때를 기다렸다가 딸에 땀나물을 뿜아 놓고 불

91) 『삼국유사』 김현감호 조와 김유신 조의 서산에 대해 전자는 문맥으로 선도산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후자는 송화산 김유신묘가 있는 곳까지 넓게 선도산 자락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서악리 김인문묘를 김유신묘로 이해한다면 더욱 선도산에 비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2) “文武王代 有沙門名廣德·嚴莊 … 德隱居芬皇西里 蒲鞋爲業 挾妻子而居, 莊庵栖南岳大種刀耕”.

93) “營宮室於南山西麓 奉養二聖兒”.

94) “王之代有閼川公·林宗公·述宗公·虎林公[慈藏之父]·廉長公·庾信公, 會于南山丐知巖, 議國事”.

을 지르니 연기가 일어났다.⁹⁵⁾ (동상 권1, 기이, 태종춘추궁)

승려가 말하길 “제가 매양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다려서 南山 三花嶺의 미륵세존께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⁹⁶⁾ (동상 권2, 기이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제49대 헌강대왕대에 … 또 鮑石亭에 행차했을 때 南山神이 임금의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⁹⁷⁾ (동상 권2, 기이2, 처용랑 망해사)

선덕왕 때 생의라는 스님이 항상 道中寺에 거주하였다. 꿈에 [한] 스님이 그를 데리고 南山으로 올라가 풀을 묶어서 표를 하게 하였다. … 표시해 둔 곳을 찾아 그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파보니 石彌勒이 나오므로 三花嶺 위에 안치하였다.⁹⁸⁾ (동상 권3, 탑상4, 生義寺 石彌勒)

東都의 南山의 남쪽에 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세상에서는 高位山이라고 한다.⁹⁹⁾ (동상 권3, 탑상4, 天龍寺)

궁중의 관리가 칙명을 받들어 그를 찾으려고 하는데, 벌써 南山에서 내려와 蚊川橋를 지나고 있어 만나게 되었다.¹⁰⁰⁾ (동상 권4, 의해5, 원효불기).

유가종의 개조 대현 대덕은 南山 茸長寺에 거하였다.¹⁰¹⁾ (동상 권4, 의해5, 賢瑜珈 海華嚴)

승려 혜통은 씨족을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출가하기 전에 집이 南山 서쪽 銀川洞 어귀에 있었다.¹⁰²⁾ (동상 권5, 신주6, 惠通降龍)

孝宗郎이 南山의 포석정(혹은 三花述이라고도 한다)에서 놀 때 문객들이 매우 급히 달려왔는데, 유독 두 사람만이 늦었다.¹⁰³⁾ (동상 권5, 효선9, 貧女養母)

남산은 삼화령 또는 삼화술로 불렸으며, 우지산이라고도 하였다. 왕경 오악 중 남악으로 흔히 알려져 왔지만,¹⁰⁴⁾ 아직까지 남산을 남악이라

95) “一日俟善德王遊幸南山 積薪於庭中 焚火烟起”.

96)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97) “第四十九 憲康大王之代 …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98) “善德王時 釋生義常住道中寺. 夢有僧引上南山而行 令結草爲標, … 尋所標 至其洞掘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99) “東都南山之南 有一峰屹起, 俗云高位山”.

100) “官吏奉勅將求之, 已自南山來過蚊川橋遇之”.

101) “瑜珈祖大德大賢住南山茸長寺”.

102) “釋惠通氏族未詳, 白衣之時 家在南山西麓銀川洞之口”.

103) “孝宗郎遊南山鮑石亭[或云三花述], 門客星馳, 有二客獨後”.

104)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206쪽.

한 사료는 발견할 수 없다. 한결같이 남산으로만 열거되고 있는 것이다.¹⁰⁵⁾ 이는 함월산이 남악이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를 뒷받침한다. 그러면 남산이 왕경 남쪽의 靈山이면서도 남악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쉽게도 이를 말해주는 기록은 없다. 그렇지만 남산에 新城이 축조되고 왕궁의 일부로 인식되었다면, 이유는 여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왕궁이 오악의 하나에 포함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북악인 금강산이다.

金山 加里村은 지금의 金剛山 栢栗寺 북쪽 산이다.¹⁰⁶⁾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시조 혁거세왕)

신라에 四靈地가 있으니 … 넷째는 북쪽의 金剛山이다.¹⁰⁷⁾ (동상 권1, 기이, 眞德王)

제49대 헌강대왕대에 … 왕이 또한 金剛嶺에 행차했을 때에 北岳神이 나타나 춤을 추었으니 이름을 玉刀鈴이라 하였다.¹⁰⁸⁾ (동상 권2, 기이2, 處容郎 望海寺)

이에 그의 머리가 날아가서 金剛山 꼭대기에 떨어졌다고 하였다.¹⁰⁹⁾ (동상 권3, 흥법3, 원종흥법 위촉멸신)

鷄林의 北岳을 金剛嶺이라고 하는데 산의 남쪽에 栢栗寺가 있다.¹¹⁰⁾ (동상 권3, 탑상4, 백률사)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해 金剛山 동남쪽에 절을 짓고 이름을 道場寺라고 하였다.¹¹¹⁾ (동상 권4, 의해5, 蛇福不言)

遺體를 받들어 金剛山에 장사하고 예배하였다.¹¹²⁾ (『海東高僧傳』 권1, 유통1, 釋法空)

내가 東都에서 놀 때, 金剛嶺에 올라 외로운 무덤과 짧은 비석을 보고는 개연히

김병곤,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新羅文化』 43, 2014.

주보돈, 「신라 남산의 역사성」, 『신라 왕경의 이해』, 2020.

105)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에서는 金鰲山이라고 하였다.

106) “金山加里村 今金剛山栢栗寺之北山也”.

107) “新羅有四靈地 … 四曰北金剛山”.

108) “第四十九 憲康大王之代 … 又幸於金剛嶺時 北岳神呈舞 名玉刀鈴”.

109) “於是其頭飛出落於金剛山頂云云”.

110) “雞林之北岳 曰金剛嶺, 山之陽有栢栗寺”.

111) “後人爲創寺於金剛山東南, 額曰道場寺”.

112) “送奉遺體 營葬金剛山 禮也”.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¹¹³⁾ (『海東高僧傳』 권1, 유통1, 釋法空)

북악은 금강산 또는 금강령이라고 하였다. 금산 가리촌의 금산도 금강산을 가리킨다.¹¹⁴⁾ 금강산의 위치를 백률사의 북쪽 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헌강왕이 행차하였을 때 북악신이 나타나 춤추었는데, 이름을 옥도금이라 하였다. 이로 보아 9세기말 헌강왕대에는 북악을 비롯한 왕경오악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왕경오악의 기원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금강산이란 이름이 불교적인 데서 그 시기는 불교수용 이후여야 한다. 앞서 살핀 문헌자료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왕경오악은 문무왕대에 형성되어 경덕왕대, 헌강왕대 이후까지 계속 불려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왕경오악의 성립 시기도 삼국통일 이후로서, 신라오악의 성립과 비슷한 7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서서히 유행하였다고 생각된다.¹¹⁵⁾ 그러나 왕경오악은 국가제사로 제도화되지 않아 신라오악보다는 관념적이고, 구속력도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왕경오악 가운데 우리의 관심인 북악 금강산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금강산은 왕경의 神聖地로서 주목되었다. 明活山 高耶村의 촌장 虎珍은 금강산에 하강하였고, 關川 楊山村의 村長 謁平은 瓢嵒峰에 내려왔다. 표암봉을 금강산 서쪽 자락으로 파악한다면,¹¹⁶⁾ 6촌장 가운데 알평과 호진이 같은 금강산에 강림하였다.¹¹⁷⁾ 물론 이를 역사적 사실로

113) “予游東都 登金剛嶺 見孤墳短碑 慨然不能自止”.

114)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上)』, 塙書房, 1975, 427쪽.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68~70쪽.

115) 주보돈, 「신라 왕경5악의 형성과 금강산」, 『신라 왕경의 이해』, 2020, 365쪽에서는 왕경오악의 성립 시기를 이차돈 현창사업이 이루어진 9세기 초 이후로 보았다.

116)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69쪽에서 표암봉을 금강산에 있다고 이해하였다.

117) 금산 가리촌의 촌장 지타가 금강산에 내려왔고, 명활산 고야촌의 촌장 호진이 명활산에 내려왔다고 해야 할 것이 뒤바뀌어 잘못 적혔다고 한다(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上)』, 1975, 427쪽; 채미하, 「신라의 6村과 山嶽祭祀」, 『新羅史學報』 23, 신라학회, 2011, 80쪽). 그렇다면 금강산에 내려온 것은 알평과 지타가 된다.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강산만이 신라 6성과 관련되고 두 성씨 시조의 탄장지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착신앙의 중심지로서 금강산의 신성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다.¹¹⁸⁾

또한 금강산은 신라의 신령스런 회의 장소였다. 이른바 신라 4靈地 중의 하나로서 중시되었던 것이다. 삼국시대 말 진덕왕대에 알천공·임종공·술증공·호림공·염장공·유신공 등 주요 귀족들은 남산 우지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신라에서는 장차 큰일이 있을 때에 대신들이 반드시 4영지에 모여 의논하였고, 그러면 일이 꼭 이루어졌다고 한다. 장소는 사방에 있었으니 1. 동쪽의 靑松山, 2. 남쪽의 亏知山, 3. 서쪽의 皮田, 4. 북쪽의 金剛山이었다.¹¹⁹⁾ 1,2,3,4의 순으로 번호가 매겨진 것은 大祀 三山과 같고, 방위는 동남서북의 순으로 열거되어 中祀의 5岳·4鎮·4海·4瀆의 그것과 일치한다. 우지산은 남산이고 금강산은 북악이지만, 청송산과 피전의 위치와 실상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청송산을 명활산으로, 피전을 피전산으로 해석한 견해가 주목된다.¹²⁰⁾ 그렇다면 금강산을 비롯한 4영지 모두 산악이라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겠다. 요컨대 금강산은 그 자체 산악신앙에 바탕을 둔 귀족들의 신성한 회의 장소였던 것이다.

또한 금강산은 신라 불교 공인의 성지였다. 법흥왕대 불교수용 문제로 이차돈이 월성에서 순교하자 그의 머리가 날아가 이곳 금강산에 떨어졌다. 內人들이 이를 슬퍼하여 좋은 땅을 잡아서 장사지내고 절을 세워 刺楸寺라 하였다. 후술할 栢栗寺를 이의 후신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뒷날 국통 혜원, 법주 효원과 김상량, 대통 녹풍, 대서성 진노, 파진찬 김의 등이 이차돈의 옛 무덤을 수축하고 큰 비를 세웠다. 헌덕왕 9년(817) 8월 5일에는 흥륜사의 영수선사가 이차돈의 무덤에 예불하는 향도를 모아서 법회를 열었다.¹²¹⁾ 금강산에 있던 이차돈의 옛 무덤이 고쳐지고, 추모하

118)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69쪽.

119) 『삼국유사』 권1, 기이, 진덕왕.

120)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171쪽.

121)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 위촉명신.

는 순교비가 세워졌으며, 예불하는 향도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국립경주 박물관의 이차돈 순교비는 바로 이때 만들어진 비석으로 여겨진다.

掘佛寺, 栢栗寺, 道場寺 또한 금강산의 사찰들이었다. 굴불사는 경덕왕이 백률사에 행차하여 산 밑에 이르자 땅속에서 염불하는 소리가 들려 과거 하였더니 사방불이 새겨져 있었다. 이에 절을 세우고 굴불사라 하였는데 뒤에는 잘못 전해져 掘石寺라 불렸다.¹²²⁾

백률사는 금강산의 남쪽에 있으며 현재까지 법등이 이어지는 사찰이다. 이곳 관음보살상의 영험함은 衆生寺, 敏藏寺의 그것과 함께 유명하다.¹²³⁾ 효소왕 2년(692) 3월 11일, 국선 夫禮郎이 낭도들과 함께 金蘭에 유행하였다가 狄賊에게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어 궁궐 天尊庫에 보관하던 萬波息笛과 玄琴 두 보물마저 사라져버렸다. 이에 부레랑의 양친이 백률사 대비상(관음보살상)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이들을 모두 되찾게 되었다. 왕은 기뻐하여 엄청난 포상을 실시하였다. 각각 50냥으로 된 금으로 만든 다섯 개의 그릇 두 벌과 摩納袈裟 5벌, 大稍 3천 필, 전토 1만 頃을 백률사에 시주하여 대비상의 은덕에 보답하였다, 또한 백률사의 주지를 奉聖寺로 옮기게 하였는데¹²⁴⁾ 이는 成典寺院으로의 영전이었다.¹²⁵⁾ 그 외에도 백성들에게 大赦를 내리고 3년간 조세를 면제하였으며, 부레랑과 그의 부모에게 큰 은전을 베풀고, 萬波息笛을 萬萬波波息笛이라 책봉하였다.¹²⁶⁾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국보로서 8세기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높이 1.77미터의 거대한 약사불로 민중들의 치병에 큰 효험이 있었을 것이다.

122) 『삼국유사』 권3, 탑상4,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123) 『삼국유사』 권3, 탑상4, 三所觀音 衆生寺 조에 이어 백률사 조, 민장사 조가 나오나, 이들은 본래 하나의 조목이었다고 한다. 張忠植, 『三國遺事』 三所觀音考, 『佛敎學論叢』, 天台宗 田雲德 총무원장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9.

124) 『삼국유사』 권3, 흥법3, 탑상4, 백률사.

125)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 한국사연구회, 1983, 112쪽.

李泳鎬,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4, 신라문화선양회, 1993;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344쪽.

126) 『삼국유사』 권3, 흥법3, 탑상4, 백률사.

금강산 동남쪽에 있었던 도량사는 원효와 같은 시대의 인물 蛇福의 설화를 전해주는 곳이다. 사복의 어머니가 죽었으므로 원효와 함께 장사 지냈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4일에 占察會를 여는 것으로 恒規를 삼았다고 한다.¹²⁷⁾

이와 같이 이차돈 순교설화를 간직한 금강산에 국왕이 행차하고, 신비한 효험을 나타낸 불상과 보살상이 있고, 주요 법회를 연 사찰들이 분포하였다. 이는 이곳이 불교적 성소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금강산이 왕경오악 가운데 북악으로 불린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4월에는 금강산 자락 표암에서 암각 명문과 당간 등의 그림이 발견되었다. 암벽 사이의 초목을 제거하던 중 바위 면에서 확인하였는데,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¹²⁸⁾ 그렇다면 이 또한 금강산 일원의 신성지로서의 중요성을 더해 주는 사례일 것이다.

끝으로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金剛山이란 이름이다. 금강산은 오늘날 小金剛山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금강산이었다. 경주의 금강산이 소금강산으로 불리게 된 것은 북한의 금강산이 유명세를 타면서부터였다. 신라시대 경주의 그것이 금강산으로 불리던 시절 북한의 금강산은 霜岳 또는 楓嶽으로 불렸다. 고려 말부터 비로소 금강산이란 이름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금강산이 유명해지면서 경주의 금강산이 소금강산으로 격하되어 불리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¹²⁹⁾ 주객이 전도된 이 같은 현상은 하루바삐 시정하고 원래의 이름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127) 『삼국유사』 권4, 의해5, 사복불언.

128) 표암문화재단·위덕대학교박물관, 『경주 표암 마애암각 현지조사보고』, 2011.10.
한정호, 「경주 표암 마애선각화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41, 2013.
홍광표, 「경주 표암 선각화의 사찰경관적 의미」, 『新羅文化』 41, 2013.

박대재, 「경주 동천동 표암 石刻의 銘文과 역사적 환경」, 『新羅文化』 41, 2013.
129)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2004, 70~71쪽.

V. 맺음말

신라인들은 산악을 숭배하고 신성시하였다. 그래서 시조가 산 정상에 내려왔다는가 선악에 태어났다는 설화를 많이 남겼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왕검의 탄생 설화나 혁거세의 탄생 설화, 가야의 건국 설화, 신라 6성의 기원이 된 6촌장의 강림 설화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를 사실로 믿긴 어렵지만, 일찍부터 산악을 성산으로 숭배하고 신앙한 전통이 이러한 설화들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겠다.

신라에서는 명산대천을 大祀·中祀·小祀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제사하였다. 대사인 삼산이 신라 왕경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중사인 오악은 통일된 신라의 5방을 무대로 하였다. 소사 또한 전국의 여러 산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같은 정연한 체계는 삼국통일기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삼산오악에 대한 제사였다.

종래 삼산 신앙은 김유신과 3곳 호국지신 설화에 근거하여, 3곳의 산악이 이미 제도화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별 산악숭배 자체는 일찍부터 있었으나 나립, 혈례, 골화의 3신이 묶여서 대사가 된 것은 삼국통일 이후라고 파악하였다. 나아가 대성군의 위치 비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이들 3신의 출현 과정은 김유신이 나아간 행로를 말해준다고 이해하였다. 그래서 삼산과 오악이 국가제사로서 확립된 것은 삼국통일 이후 당의 문물을 수용한 7세기 후반임을 살펴보았다.

삼산과 신라오악은 국가의 제도로 확립되어 『삼국사기』 제사지에 편제되었다. 그러나 수도에는 왕경오악이 별도로 존재하였는바 학계에서는 대체로 동악 토함산, 서악 선도산, 남악 남산, 북악 금강산, 그리고 중악 낭산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왕경오악을 신라오악과 비교하면서 그 실태를 검토하였다. 금석문에서는 남악, 북악 등 신라오악의 일부가 보이나 왕경오악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왕경의 남산, 북산, 서산의 용례를 통해 방위에 따른 산악의 존재를 살펴 뚝은 여전히 山으로 불리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는 한결같이 남악은 남산이 아니라 함월산으로 나타남을 주목하였다.

나아가 『삼국유사』 등의 문헌자료에서 왕경오악의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고, 남악은 南山이 아니라 含月山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남산이 왕경 남쪽의 靈山이면서도 남악이 되지 못한 이유는 남산에 新城이 축조되고 왕궁의 일부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왕경오악의 성립시기는 금강산이란 명칭으로 보아 불교수용 이후일 것이지만, 현재의 사료로는 문무왕대가 주목되었다. 그렇다면 이의 성립시기는 신라오악과 같은 삼국통일 이후이며, 7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서서히 유행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신라오악처럼 국가제사로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념적이고 구속력이 약했다고 파악하였다.

끝으로 북악 금강산의 왕경의 신성지로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6촌장 강림 설화에서 호진과 알평 2촌장이 금강산에 하강하였다. 금강산만이 신라 6성 기원 설화와 관련되고 두 성씨 시조의 탄강지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말해주었다. 또한 금강산은 나라의 큰 일이 있을 때에 대신들이 모여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신라 4영지의 하나였다. 금강산을 비롯한 4영지 모두 산악으로 파악되어 그 자체 산악신앙에 바탕 한 신령스런 회의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금강산은 신라 불교 공인의 성지였다. 법흥왕대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이 있어, 금강산에 있던 그의 옛 무덤이 수리되고, 추모하는 순교비가 세워졌으며, 예불하는 향도가 결성되었다. 굴불사, 백률사, 도량사 등의 사찰들이 분포하였으며, 국왕이 행차하였다. 또한 신비한 영험을 나타낸 불상과 보살상이 있고, 주요 법회가 열린 성소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금강산이 왕경오악 가운데 북악으로서 위상이 높았던 사실과 무관치 않았다고 하겠다.

※ 이 논문은 2023년 05월 2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5월 25일부터 06월 0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6월 0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가.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海東高僧傳』,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地理志』, 『三國志』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나. 단행본

강중훈, 『한국고대사, 사료비판론』, 교육과학사, 2017.

文暉鉉, 『增補 新羅史研究』, 창, 2000.

문경현 외, 『新羅王京五岳研究』, 경주시·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朴方龍, 『新羅都城』, 학연문화사, 2013.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李基白, 『韓國古代史論 -增補版-』, 일조각, 1995.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주보돈,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2002.

주보돈, 『신라 왕경의 이해』, 주류성, 2020.

秦弘燮, 『三國時代의 美術文化』, 동화출판공사, 1978.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上)』, 塙書房, 1975.

다. 논문

김병근,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新羅文化』 4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金侖禹, 「新羅時代 大城郡에 관한 考察 -新羅王都 周圍의 所在郡縣에 대한 一考察-」, 『新羅文化』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7.

文暉鉉, 「新羅人の 山嶽崇拜와 山神」,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 新羅思想의 再照明』 12, 신라문화선양회, 1991.

박대재, 「경주 동천동 표암 石刻의 銘文과 역사적 환경」, 『新羅文化』 41, 동국대학

- 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 박대재, 「新羅의 四靈地會議와 和白」, 『新羅文化』 4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 朴方龍, 「都城·城址」, 『韓國史論』 15, 국사편찬위원회, 1985.
- 朴方龍, 「慶州 南山新城의 研究」, 『考古歷史學志』 10,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4.
- 박방룡, 「異次頓 舍人 墓와 祠堂에 대한 斷想」, 『신라문화유산연구』 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9.
- 辛鍾遠, 「『三國史記』 祭祀志研究」, 『史學研究』 38, 한국사학회, 1984.
-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韓國史研究』 43, 한국사연구회, 1983.
- 李泳鎬,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4, 신라문화선양회, 1993.
- 李泳鎬, 「新羅 文武王陵碑의 再檢討」, 『歷史教育論集』 8, 경북대 사대 역사교육과, 1986.
- 李泳鎬,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 國邑에서 都城으로』 26, 신라문화선양회, 2005.
- 李泳鎬, 「新羅 國學의 成立과 變遷」, 『歷史教育論集』 57, 역사교육학회, 2015.
- 張忠植, 「『三國遺事』 三所觀音考」, 『佛敎學論叢』, 天台宗 田雲德 總務院長 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9.
- 전인초, 「오악(五嶽)의 신화 전설」, 『人文科學』 8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8.
- 주보돈, 「신라 狼山の 歷史性」, 『新羅文化』 4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 채미하,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祀典)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채미하, 「신라의 6村과 山嶽祭祀」, 『新羅史學報』 23, 신라사학회, 2011.
- 한정호, 「경주 표암 마애선각화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4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 홍광표, 「경주 표암 선각화의 사찰경관적 의미」, 『新羅文化』 4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 洪淳稥, 「新羅 三山·五岳에 대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 新羅民俗의 新研究』 4, 신라문화선양회, 1983.

加藤繁, 「宋代に於ける都市の發達に就いて」, 『支那經濟史考證(上)』, 東洋文庫, 1965.

山根幸夫(李相楳 譯), 「中國의 中世 都市」, 『東洋 都市史 속의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라. 보고서

표암문화재단·위덕대학교박물관, 『경주 표암 마애암각 현지조사보고』, 2011.10.

마. 기타

金東胤, 「斯盧의 發展과 護國三神의 성립」, 한국고대사연구회 제8회 정기발표회, 1988.12.27 ;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9, 1989.

Abstract

Mountain Worship of the Silla People and Mount Geumgang, the Northern Mountain

Lee, Young-ho

The Silla people held mountains sacred. Therefore, they left many tales, in which their ancestor had descended from Heaven to the summit of a mountain or had been born in a mountain. Of course, it is hard to believe them as true, but these tales were created from a tradition of worshipping mountains as sacred and having faith in mountains from early times.

The Silla people offered large, medium, and small sacrifices to the mountain deities. The large sacrifice was offered to three mountains located in the capital and its vicinity; the medium sacrifice to five mountains in the unified Silla's five bang; the small sacrifice to many mountains throughout the country. This orderly sacrificial system dated from the introduction of Chinese culture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large sacrifice to the three mountains and the medium sacrifice to the five mountains were especially important.

The two important sacrifices were institutionalized late in the seventh century, when Silla actively began to introduce advanced Tang culture. Established as a national institution, the two sacrifices were recorded in the "Treatise of Sacrificial Rites" in Samguk Sagi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Scholars have generally defined the five capital mountains as Tohamsan (eastern mountain), Seondosan (western mountain), Namsan (southern mountain),

Geumgangsan (northern mountain), and Nangsan (meddle mountain). But the historical records, including Sinjeung Tongguk Yeoji Seungnam [Newly Enlarg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the Eastern Kingdom], altogether described Hamweolsan, not Namsan, as the southern mountain. Examining specific examples of the five capital mountains in the documentary records, this study has confirmed Hamweolsan, not Namsan, as the southern mountain. It also has understood the reason why Namsan, a sacred mountain south of the capital, was not classified as the southern mountain as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it was regarded as part of the royal palace with the construction of a new rampart in the mountain. The five capital mountains appear to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the reign of King Munmu. It is presumed that like the “five Silla mountains,” they appeared in the late seventh centur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n steadily came into fashion. But rituals to sacrifice to them seem to have been less compulsory than those to the five Silla mountains.

Finally, Mount Geumgang, the northern mountain, was the capital's sacred ground and was important in that it only was related to the tale regarding the origins of the six Silla family names and especially understood as the birthplace of the progenitors of two family names. Based on the faith in mountains, it also was one of the four sacred sites where the Hwabaek council meetings were convened. In addition, it was a sacred place where Buddhism was officially recognized in Silla. In the context of the storied martyrdom of Yichadon in the reign of King Beopheung, there a cenotaph was set up to the memory of him and an association was formed to cherish the memory of him. All these were closely relevant to the particular importance of Mount Geumgang as the northern mountain among the five capital mountains.

keywords :

Three Mountains, Five Silla Mountains, Five Capital Mountains,
Northern Mountain, Southern Mountain, Mount Geumgang